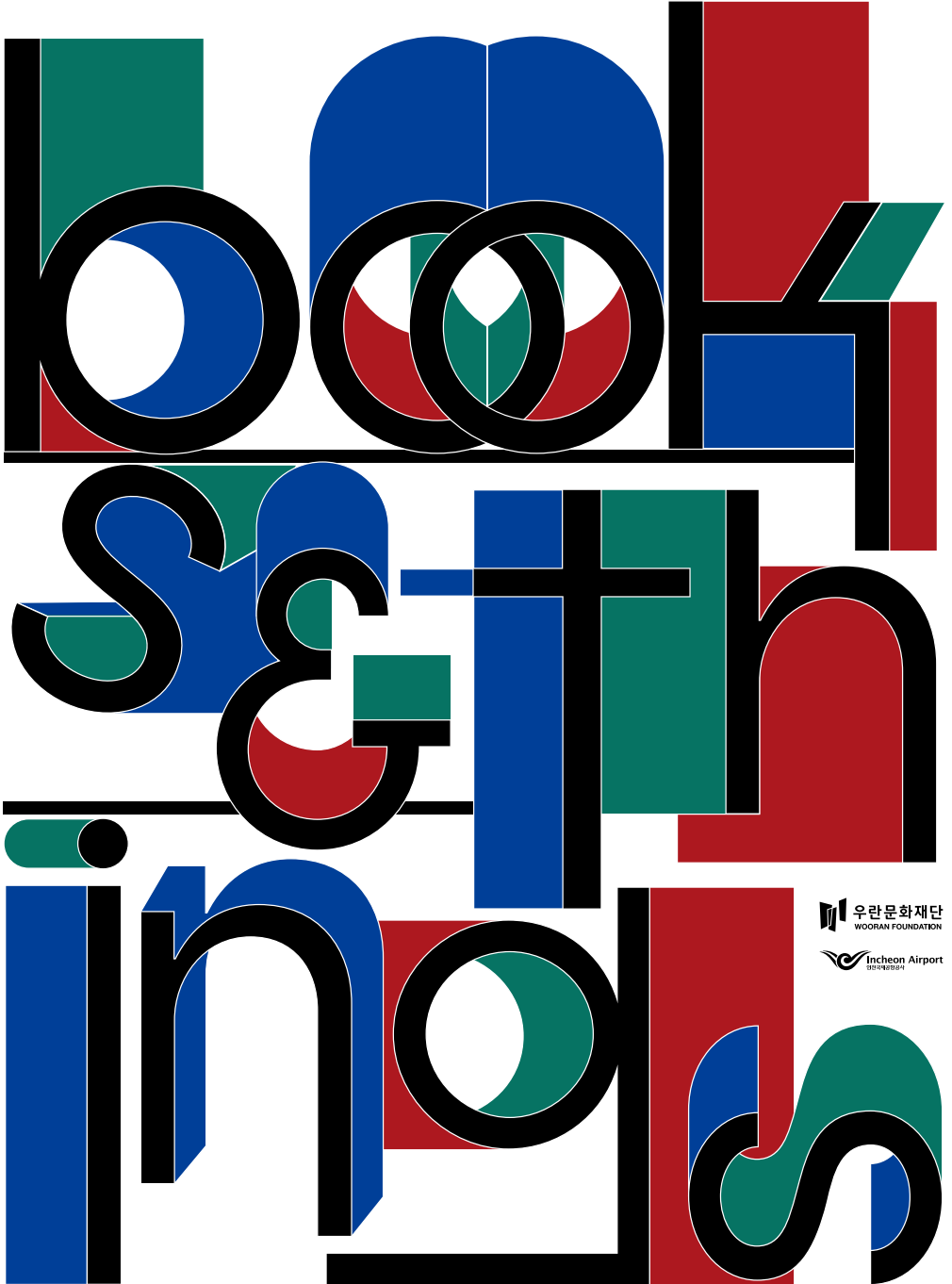


BOOKS & THINGS:
물아일체

2022.09.29 - 2023.03.28
인천공항박물관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3층

김동해, 이예승, 정도이, 정재나, 조성연, 채병록



 우란문화재단
WOORAN FOUNDATION

 Incheon Airport
INCHEON

기획 우란문화재단 정지영, 백승의
협조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채린
참여작가 김동해, 이예승, 정도이, 정재나, 조성연, 채병록
공간디자이너 비아문 인스피레이션(이상준)
그래픽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
영인본 제작 모리함
번역 서울셀렉션
공동 주최 우란문화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란문화재단
 04782 서울 성동구 연무장7길 11
 www.wooranfdn.org
 @wooran_fdn

© 2022 우란문화재단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는 글쓴이와 원작자에게, 출판권은 우란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Curated by Wooran Foundation
 Jung Jiyoung, Baik Sunny
Cooperated by IIAK KIM CHAERIN
Artists Kim Donghae, LEE YeSeung,
 Doi & Jaena Jung, Jo Seongyeon,
 Chae Byungrok
Space Design VIAMOON INSPIRATION
 (Lee Sangjun)
Graphic Design paperpress
Baecheop by Moryham
Translation Seoul Selection
Co-hosted by Wooran Foundatio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Wooran Foundation
 11, Yeonmujiang 7-gil, Seongdong-gu, Seoul, 04782
 www.wooranfdn.org
 @wooran_fdn

© 2022 WOORA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manner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each copyright holder: WOORAN FOUNDATION and respective original authors.

BOOKS & THINGS: 물아일체 物我一體

정지영(우란문화재단 큐레이터)

로 '취향 표현'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지금은 바야흐로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취향의 시대가 되었다. 누구든지 확고한 개인의 취향으로 본인의 물건을 선택하고, 공통의 취향을 찾아 서로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 모든 선택은 나의 기호를 표현하는 취향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의 취향은 완성된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만의 취향을 표현하고 즐기는 일은 이미 행복의 한 조건이 되었다.

‘Books and Things: 물아일체’전에서는 전통 민화, 책거리/책가도를 당대 취향이 담긴 하나의 표현으로 바라보고, 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책거리는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라는 뜻이다. 이 가운데 서가 속에 책과 물건을 배치한 그림을 책가도라고 한다. 책거리는 조선 후기에 널리 퍼진 정물화이다. 정물화는 서양화의 대표적 장르이지만, 조선에는 책으로 특화되어 존재했다. 서양의 정물화는 꽃, 과일, 음식, 가구 등을 그렸지만, 책거리에는 책을 비롯해 도자기, 청동기, 꽃, 과일, 기물 등이 등장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림 속에 그려진 책과 물건(Books and Things)에 대해 당대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를 병치해보고자 한다.

정신문화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였지만 후기에 들어서는 현실적인 물질문화에 대한 욕망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념과 명분만으로는 조선 경제를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정신에서 비롯되지만 물질이 배제된 행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 현실적 욕망이 응집된 그림이 바로 책거리이다. 이처럼 책거리는 ‘이념의 시대’에서 ‘물건의 시대’로 옮겨가는 변화의 신호탄으로서 볼 수 있다. 책과 물건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고고하면서도 통속적인 책거리는 조선 후기 문화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다. 이 풍경은 정신과 물질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보면 물질문화가 정신문화에 기대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당시의 변화에 주목해보고 이를 통해 당시의 가치와 생각들을 지금 우리 현 시대와 맞물려 바라보고자 한다.

책거리의 주제는 진귀한 물건들을 보고자 또 소유하고자 하는 물질적 욕망이다. 이 욕망은 도시 문화의 발달과 문화적 물품의 생산, 그리고 자본의 발달 등 사회적 배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19세기가 되고 사대부 외에 신흥 부유층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 갖추고 있어야 축에 빠지지 않는” 책거리 그림을 열망하면서, 책거리가 드디어 민중의 그림인 민화의 영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궁중 책가도와 달리 민화 책거리는 표현이 훨씬 자유분방하고 기발하다. 반면에 묘사된 물건들은 책가도처럼 낯선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반영하는 기물보다는 전통적으로 출세와 신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물건과 함께 한다. 당장 책상 주변만 살펴봐도 수십 가지의 물건이 놓여있다. 이 물건들은 어떻게 나에게 선택되었을까? 아마도 이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는 나의 취향이었을 것이다. 특히나 자아실현이나 나만의 감성을 위한 소비를 지향하는 요즘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소비활동’이 바로

책가도/책거리

책가도란 일반적으로 서적과 문방구, 도자기, 꽃, 과일 등을 나열한 책장을 서양의 투시 원근법을 사용하여 그린 병풍 형식의 그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책가도는 ‘책거리(冊距里)’ 혹은 ‘문방도’라고도 불릴 뿐만 아니라 서양의 투시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은 그림과 기물들을 책장이 아닌 바닥에 펼쳐 놓은 것처럼 그린 것과 소반 위에 기물들을 쌓여 올려 그린 것 또한 같은 명칭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있다.

책거리는 책과 관련된 주변을 그린 그림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거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먹거리’, ‘구경거리’, ‘놀거리’에서 쓰여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는 의견이 있으며, 그 밖에 ‘걸다’를 명사화한 단어로 표현한 의견이 있다. 거리의 거(距)는 ‘걸다’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으며 책거리는 책을 걸어놓는 것, 즉 책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책가도 주변의 유사한 그림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연구자에 따라 달라서 이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분상승, 부귀영화의 기복적 상징으로 쓰인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근대 시민으로 발전하지 못한 당시 신흥 부유층의 한계를 보여주는 셈이다.

당시에는 하찮은 물건에 집착하면 큰 뜻을 잃는다는 뜻의 완물상지(玩物喪志)를 조선시대 선비들이 늘 마음에 새기며 도덕적 경구로 삼았었지만, 지금은 이 취향의 추구가 세상의 불평등을 변화하고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렇게 책거리는 그려진 대상과 그림을 소비하고 감상했던 주체 사이에 구별없이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의 경지를 당대 사람들에게 선사해주었다. 취향이 시대의 산업과 경제를 뒤흔들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지금의 시대 역시, 한 개인의 선택을 받은 대상과 이를 마주한 주체인 나는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유물인 궁중 책가도 영인본 1점과 이를 변용한 6명의 작가 작품 30여 점을 선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책거리/책가도의 새로운 가능성과 현재적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표현의 대상을 사진으로 담아온 조성연 작가는 '책'이 개인의 취향을 보여주는 사물 중 가장 솔직하고 명확한 기물이라 바라보고 이를 화첩 형태로 전시장 안에 펼쳐놓으며, 현대인의 취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공예 작업으로 우리 일상의 풍경을 표현하는 김동해 작가와 순수한 형태로부터 일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정도이, 정재나 작가는 설치, 오브제 작품을 통해 당대의 일상의 풍경과 대비되는 우리의 일상을 상상하게 한다. 채병록 디자이너는 책가도가 갖는 주요한 사상과 가치들을 텍스타일 기반 그래픽 작업을 통해 확장해간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해 과거와 현실 시간 속에서 대상과 자아를 마주하도록 하는 이예승 작가의 작품은 몰아일체의 개념으로서 전시장에 위치한다.

이 시간, 그 시대 모든 선비들의 이상향이었던 삶, '밝은 창, 깨끗한 책상 아래 향을 피우고 차를 끓여 법첩과 그림을 완상하며, 좋은 버루와 명목을 비롯한 갖가지 문방구를 애완하는 문방청완(文房淸玩)의 삶'을 지향해보는 건 어떨까?

책가도의 기원

책가도는 중국 청나라의 다보각경도(多寶閣景圖)·다보격경도(多寶格景圖)의 영향을 받아 정조의 문치 이념에 활용되며 조선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경된 그림이다. 이탈리아 선교사이자 중국 궁중화가로 활동한 전 낭세령(Father Guiseppe Castiglione, 1688-1766)이 그린 <다보격경도>가 조선 책가도의 기원으로 추정된다.

왕실 차원에서 장려한 책가도는 사대부를 거쳐 일반 백성에게까지 퍼지며 큰 인기를 끌게 된다. 국왕 전축 화원인 자비대령화원들이 그렸던 대형 병풍 형태의 초기 책가도는 학문 숭상의 목적 아래 서양화법의 원근법과 명암법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하여 책장 속에 책을 중심으로 문방사우를 비롯한 고급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고풍기와 기물, 꽃과 과일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19세기 민간으로 내려갈수록 책가도는 책보다는 다산, 출세, 장수 등 개인의 염원을 담은 각종 기물이 주요 소재가 되어 좀 더 세속적이고 장식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화원의 원본과 멀어질수록 책가도만의 독자적인 색깔이 더욱 강해지는데 이는 전통적인 공간 개념인 역원근법과 다시점 구도를 사용하며 민화 특유의 평면성이 돋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책가도는 조선의 현실적 맥락 속에서 개성적으로 소화되며 전통적인 공간 개념을 토대로 나와 사물(책, 기물 등)을 일치시키며 몰아일체의 경지를 맞출 수 있다.

BOOKS & THINGS: The World of Oneness

Jung Jiyoung (Curator, Wooran Foundation)

We live in the company of countless objects. You can probably spot dozens of them immediately around your desk. How did these objects come to be chosen by us? One of the criteria for selection is often taste. After all, for the current generation, which prioritizes self-realization and consumption based on personal taste, the act of consumption has become a direct expression of one's preferences. This is an era of preferences in which everyone is free to express their interests. People choose products based on their established tastes, and moreover, find, interact with,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those who share similar ones. All of our choices stem from our preferences, and these choices ultimately complete our tastes. For those of us living in the current times, displaying and reveling in our tastes has become an established condition for happiness.

The exhibition *Books and Things: The World of Oneness* takes a look at and starts a conversation about *chaekgeori* and *chaekgado*, Korean traditional folk paintings, as representations of people's tastes at the time of the artworks' production. *Chaekgeori* refers to paintings that feature books and various related items. *Chaekgado* is a subset of these paintings that specifically depict bookcases displaying books and miscellaneous items. A form of still life painting, *chaekgeori* was popularized in the late Joseon period. While still lifes are a major genre in Western painting, Joseon-period still lifes were limited in subject to books. As opposed to Western still lifes, which depict flowers, fruits, food, and furniture, Korean *chaekgeori* depicts books as the main subject, often accompanied by porcelainware, bronzeware, flowers, fruits, and other miscellaneous objects. This exhibition seeks to juxtapose the present-day and past significances of the items (books and things) portrayed in the paintings.

The Joseon Dynasty was largely dominated by spiritual culture, but a realist desire for the material began to emerge toward the latter part of the period, as ideology and a sense of moral duty proved to be not enough to endure Joseon's economy. Ultimate forms of human happiness may be found within the mind, but happiness is difficult to achieve completely exclusive of material support, and this very realist notion is densely instilled in *chaekgeori*. As such, *chaekgeori* can be seen as a signal of the Joseon Dynasty's change from the "age of ideologies" to the "age of things." Featuring books, a symbol of the erudite, next to commonplace items, *chaekgeori* symbolizes the duality of late Joseon culture. The spiritual and material seem to be in harmony in the depicted scenes, but examined closely, viewers may find that the material leans on the spiritual to attain a voice and presence. This exhibition illuminates this shift from spiritual to material and seeks to connect Joseon-period values and ideas to our present age.

At the heart of any *chaekgeori* is the material desire to appreciate and own precious objects. This desire was intimately tied to Korea's social progress in everything from its urban culture to the production of cultural goods and capital growth. With the

Chaekgado/Chaekgeori

In general, the term *chaekgado* refers to folding screen paintings that depict a bookshelf arranged with objects such as books, stationery, pottery, flowers, and fruits in Western linear perspective. However, *chaekgado* is also often called *chaekgeori* or *munbangdo*, and the term sometimes embraces paintings that do not use Western perspective, that depict objects as if laid on the floor instead of a bookshelf, or that illustrate a pile of objects on a small table.

Chaekgeori is generally defined as paintings that portray books and other objects related to them. *Chaek* means book, but interpretations of the meaning of the Korean word *geori* vary. Some say it means "things," like the Korean suffix *-geori*, as used in other Korean words like *meokgeori* (something to eat), *gugyeonggeori* (something to see), and *noigeori* (something to play with), while others say that the word is the noun form of the Korean verb *geol-da* (to hang or place), and *chaekgeori* means "things that place books" thus "bookshelf." Different researchers prefer different terms for *chaekgado* and other similar paintings, and therefore, more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to achieve a consensus on the term and its definition.

dawn of the 19th century and the emergence of a new wealthy class that would replace the existing nobles, *chaekgeori* became sought after as an indispensable token of wealth, ultimately transgressing into the popular realm of folk paintings. Unlike the *chaekgado* produced in the royal court, folk *chaekgeori* was more free-spirited and creative in their expression. In terms of subject matter, however, they mostly featured traditional symbols of success, wealth, glory, and luck, unlike court *chaekgado*, which were composed of items that reflected a curiosity about and fascination with the exotic world. This attests to the limits of the newly wealthy class at the time, who had yet to reach the status of “modern citizens.”

Whereas Joseon-period *seonbi* (virtuous scholars) always kept in mind the moral aphorism *wanmulsangji*, meaning, “Clinging to trivial objects leads to the loss of big ambitions,” today, the trivial pursuit of taste is often discussed as a solution to alleviate inequality. As explored, *chaekgeori* presented the people of Joseon with an experience of *murailche*, a state in which the painted objects and the consumers/viewers of the paintings became one, indistinguishable from each other. The same experience is shared today, a time in which taste has a tight grip on industries and the economy, as objects chosen by an individual often ultimately create a sense of *murailche*.

The exhibition *Books and Things: The World of Oneness* presents a photographic edition of court *chaekgado*—a relic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round 30 modern takes on the traditional genre by six contemporary artists, offering viewers an opportunity to assess the genre’s alternative possibilities and modern value.

Books are widely owned objects, and a collection of books can encapsulate the collector’s taste. Under this theme, artist Jo Seongyeon presents a work in medium of her expertise—photography, respectively— capturing the tastes of modern people. Kim Donghae, whose craftworks embody ordinary landscapes, and Doi & Jaena Jung, who finds everyday joy in pure forms, present an installation and an object artwork, respectively, to contrast daily life today to that of the Joseon period. Designer Chae Byunrok presents a textile-based graphic work to expand on the main ideas and values behind *chaekgado*. And lastly, LEE YeSeung uses AR (augmented reality) to bring objects and viewers face to face within the past and present timeframes, conceptualizing the state of *murailche* within the exhibition space.

Let this exhibition be a moment to indulge in the ideal life of the Joseon-period *seonbi*—the life of *munbangcheongwan*, in which they lit incense and drank tea at a clean desk in front of a bright window, enjoying literature and paintings and befriending inkstones, inksticks, and other fine stationery.

The Origin of Chaekgado

Chaekgado is the Joseon variation of Qing China’s *duobaoge* (meaning “shelves filled with many treasures”) paintings, and they were used to promote the ruling ideology of King Jeongjo, who placed importance on neo-Confucianism. In Joseon-era Korea, *chaekgado* seemed to originate from *The Painting of Duobaoge* by Father Giuseppe Castiglione (1688–1766), an Italian missionary and court painter in the Qing Dynasty.

Thanks to promotion by the royal court, *chaekgado* spread among aristocrats and commoners, gaining nationwide popularity. Early *chaekgado* was produced in the form of large folding screen paintings by *jabidaeryeong hwawon* (king’s painters in Joseon) for the purpose of respecting learning. They depicted bookshelves filled with books and objects that represent upper-class tastes, including *munbangsau* (the four essential tools used by scholars); Chinese bronze vessels, stationery, and decorative items; flowers and fruits by reinterpreting perspective and shading used in Western paintings. However, as *chaekgado* spread to commoners in the 19th century, various objects (not books) representing their aspirations for things such as fertility, success, and longevity became more popular subjects, making *chaekgado* more secular and decorative. As they began to appear mo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chaekgado* painted by court painters, this *chaekgado* revealed mor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two-dimensional planarity of *minhwa* (Korean folk paintings) achieved by using reverse perspective and multi-view composition, based 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space.

Although they originated from the Qing Dynasty, *chaekgado* was digested differently in the context of Joseon’s social atmosphere, in which the unification of “I” and “objects (books and other things)” based 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space, and realizing the oneness of the self and the outside world, or the world of oneness, were considered important.



김동해 일상의 자연과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공간을

장식하는 모바일이나 쓰임이 있는 물건을 만든다. 이와 함께 작품과 주변공간과의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를 수반한 대상의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사물에 담는다. 이렇듯 작가의 작업은 일상의 풍경을 사물로 구현해 공간을 채우고, 그 곳을 또 다른 풍경으로 그려낸다. KCDF갤러리(2021)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서울공예박물관(2021), TINC(2021), 문화역서울284(2021), 스페이스 소(2021), 을지예술센터(2020)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예승 작가 이예승은 드로잉, 설치,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매체를 통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매체의 형식을 탐구한다. 빛, 그림자, 인터랙션 센서 등 물리적 장치가 만들어내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간이 직면하는 사회적 현상과 동시대를 인지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는 물리적 장치를 통한 매체적 실험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두되는 인간의 자의식, 기술로 확장된 인간의 감각, 인간과 사물의 관계성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현대모터스 ZERO1NE LAB(2020)의 연구원을 역임했고, ZERO1NE(2019),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6) 등의 국내외 다수의 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SMTown 파사드(2021, 서울), TINC(2020, 서울), 현대모터스스튜디오(2019, 서울) 등의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2021, 서울), 수림문화재단(2020, 서울, 2020),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관(2020, 서울) 등의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도이, 정재나 정도이와 정재나는 공예를 기반으로 예술과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자매 아티스트이다.

Kim Donghae Kim Donghae creates useful objects and mobiles to decorate spaces by drawing inspiration from nature and the landscape of daily life. He identifies the relational structures between his work and the surrounding space to capture in its entirety the beauty of an object that carries material and nonmaterial aspects. That is, Kim turns the landscape of daily life into objects, fills spaces with them, and turns the spaces into different landscapes.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the KCDF Gallery (2021), and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at the Seoul Museum of Craft Art (2021), TINC (2021), Culture Station Seoul 284 (2021), SPACE SO (2021), and Eulji Art Center (2020).

LEE YeSeung Exploring different mediatic styles across a wide spectrum of media, including drawing, installation, and interactive media, artist LEE YeSeung traverses the boundary between virtual reality and reality. She holds a keen interest in the way humans perceive contemporary social phenomena within the media environment created by physical devices such as light, shadow, and interactive sensors. Using these physical devices to consistently expand the terrain of her study beyond mediatic experimentation, she taps into how humans identify themselves am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how technology expands human senses, and how humans relate to objects. She previously worked as a researcher at Hyundai Motors ZERO1NE LAB (2020) and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residencies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at ZERO1NE (2019), Asia Culture Center (2016). She has held many solo exhibitions, such as those at SMTown Façade (2021, Seoul), TINC (2020, Seoul), Hyundai Motors Studio (2019, Seoul), and also participated in exhibitions at MMCA Deoksugung (2021, Seoul), Soorim

돌이 함께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즐거움으로 이는 이들에게 유년 시절의 놀이를 떠올리게 한다. 함께 손으로 만드는 놀이를 통해 이들은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쌓으며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이들은 형태의 구조적인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본다. 특히 구조적인 형태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을 탐구하며 이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오브제, 조각, 아트퍼니처, 설치, 사진, 공공미술 등을 작업하며 예술과 디자인 사이의 조형적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예청(2021, 아인트호벤), KCDF갤러리(2021, 서울), PACK(2021, 서울, 세종, 울산, 부산),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2021, 대전), 플랫폼엘(2021, 서울), 오, 디어(2020, 서울, 의정부), BY을지로프로젝트(2019, 서울), 서플라이서울(2018, 서울), 우란문화재단(2017, 서울)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조성연 조성연은 자신의 삶과 관계 맺으며 온 대상들과의 교감을 통해 재발견된 형상을 사진으로 표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관객으로 하여금 사신 속 대상과 장면을 작가의 인식체계 안으로 불러와 물질 간의 맥락을 경험하고 대상체의 새로운 관계성을 깨닫게 한다. 스페이스 소(2021, 2018,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2020, 서울), B컷 갤러리(2016, 서울), 가비 갤러리(2012, 서울) 등 12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우양미술관(2021, 경주), 온양민속박물관(2020, 2019, 아산), 국립광주박물관(2020, 광주), 대구미술관(2018, 대구), 닷미술관(2018, 광주, 경기), 스페이스 캔(2016, 서울) 등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파라다이스 호텔, 삼성카드, 건국대학교 병원 등에 소장되었다. 계원예술대학 사진예술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Cultural Foundation (2020, Seoul), the Nam-Seoul Museum of Art (2020, Seoul) and more. She currently works as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Art and Design, Korea University.

Doi & Jaena Jung A sister duo, Doi & Jaena Jung are Korean artists working on art and design based on craft. Since their childhood, creating something together with their hands is a joyful memory that evokes the play of the old days. By an act of handcrafting play, they share their thoughts, accumulate stories, and discover ideas. They keep their interests in the aspects of structural form. Especially, based on an exploration of stability from structural form, they are interested in imparting new significance and function to it. They continually explore the boundaries between design and art by producing works such as objects, sculptures, art furniture, installations, photography, and public art. They have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hosted by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Crafts Council Nederland (2021, Eindhoven), the KCDF Gallery (2021, Seoul), PACK (2021, Seoul, Sejong, Ulsan, Busan), Daejeon Shinsegae Art & Science (2021, Daejeon), Platform-L (2021, Seoul), ohdear (2020, Seoul, Uijeongbu), BY Euljiro Project (2021, Seoul), Supply Seoul (2018, Seoul), and the Wooran Foundation (2017, Seoul).

Jo Seongyeon Jo Seongyeon rediscovers and expresses figurativeness through photography by communing with objects that she has established relationships with in her life. Through this process, her work allows viewers to look at the objects and landscapes in the photographs from the viewpoint of the artist, experience the contexts between things, and realize the new relationships between them. She has held 12 solo

채병록

그래픽 표현이라는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2014년부터 디자인 스튜디오 CBR Graphic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전통으로부터 현대적 미감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포스터라는 매체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일종의 시각 실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나이키, 스타벅스,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단체나 기업과 협업 활동도 한다.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V&A Museum), 뮌헨 국제디자인박물관(Die Neue Sammlung) 그리고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었다.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조형대학 디자인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Chae Byungrok

Chae Byungrok is a graphic designer who experiments with various ideas in the field of graphic expression. He has run the design studio CBR Graphic since 2014. He continually works on discovering contemporary senses of beauty in traditions, based on "Korean" identity, and engages in a sort of visual experimentation of discovering and expressing concepts through posters. He often collaborates with various cultural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such as Nike, Starbucks,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His work is held in the collections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the International Design Museum (Die Neue Sammlung) in Munich, and the National Hangeul Museum. Chae Byungrok is an adjunct professor at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esign, College of Art and Design) and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Design, College of Art and Design).

exhibitions, including at SPACE SO (2021, 2018, Seoul), Lotte Department Store Main Branch Avenuel (2020, Seoul), B.CUT Gallery (2016, Seoul), and Gallery Gabi (2012, Seoul).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those at Wooya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21, Gyeongju), Onyang Folk Museum (2020, 2019, Asan), Gwangju National Museum (2020, Gwangju), Daegu Art Museum (2018, Daegu), Datz Museum of Art (2018, Gwangju, Gyeonggi), and Space CAN (2016, Seoul). Her work is at MMCA Art Bank, the Paradise Hotel, Samsung Card, and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he was previously an adjunct professor at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우란문화재단

우란문화재단은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고故 우란友蘭 박계희 여사(위커힐 미술관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고귀한 꽃을 피우는 난蘭처럼, 치열한 문화예술 환경에 뿌리내리는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생태계를 고민합니다. 우란문화재단은 자신만의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문화예술 본연의 가치를 즐기며 스스로를 당당히 마주하는 인재를 주목합니다. 끊임없는 실험의 장려와 낯선 소재를 연구할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의 제공, 상업적 논리에 갇히지 않은 양질의 공연 전시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서로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Wooran Foundation

The Wooran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2014 to carry on the legacy of Wooran(友蘭) Park Gye-hee, the founder of Walkerhill Art Museum, who aspired to create a liberal space of arts and culture where people can freely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and grow themselves. Just like the orchid(蘭, Ran) blossoms in a barren environment, we endeavor to create a fertile ecosystem that helps talented people can take root in the fiercely competitive arts and culture environment and grow on their own. The Wooran Foundation sets its eyes on people who can face themselves squarely and have potential to grow with enjoying the natural value of arts and culture. In order to lead change, we have been provided an ideal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continue experiments with subject matters which are not familiar to us and presented quality contents which are recognized for their artistic values even though they are not commercially successful. We aim to create a sustainable arts and culture ecosystem where diverse artistic values can coexist.

인천공항박물관

개항 20주년을 맞아 2021년 탑승동에 개관한 인천공항박물관은 전통을 다루는 동시대미술과,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물을 함께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인천공항박물관의 폭넓은 전시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를 찾고, 한국 전통미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함으로써 인천공항박물관은 한국 문화와 예술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Incheon Airport Museum

Incheon Airport Museum was opened in 2021, to mark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20th anniversary. Located in Concourse, it showcases cultural treasures as well as contemporary art works about Korean tradition. At Incheon Airport Museum, with a variety of contents, you can explore modern values of cultural heritage and discover creative ways to represent the aesthetics of Korea. By connecting past with present, people with people, and cultures with other cultures, Incheon Airport Museum aims to evolve into a global platform for Korean art and culture.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